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hotmail.com
May & June 2017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왕상 21:29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왕 이었습니다. 아합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죽음에 대해 예언하며 경고 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왕은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을 합니다. 아합왕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과 관용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주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새로운 선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GMP America 허입 과정이 무사히 끝나고, 지난 5/9-12 태국 방콕에서 열인 총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선교회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총회였습니다. 이사님들을 포함하여 같은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만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GMP America 선교회가 미주에서 시작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소속 선교사는 많지 않고,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확신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각자 사역하는 선교지는 다르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큰 도전과 새 힘을 얻었습니다.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자가 된다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

이케다 소죠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일본 목사님으로는 드물게 첫 사역이 심방사역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알고, 교회와 교인들은 목사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정적으로도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 주차장 구입시 남아 있었던 대출금을 모두 pay off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교회는 아무 빚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새로운 신축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교회건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건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6/24-27에 한국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반 중 한 그룹이 훈련과정의 하나로 국제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9명의 남성 장년그룹이었습니다. 연령도 직업도 다양한 그룹이었습니다. 24일 주일 저녁에는 국제교회 남성 장년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교회는 남성 장년의 모임이 약하고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교제가 다시 모이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도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회에도 남성 장년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7/16-17에는 국제교회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각 언어의 예배 별로 수련회가 있었는데 담임목사님이 오셨으니 각각이 아닌 하나가 되어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자는 취지에 이번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통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참 예배자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선교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삿포로에서 Michelle Lee 선교사